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최영희†

김은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기존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영화의 치료적 요인을 접목시켜 재구성한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하는 B중학교 남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성 점수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3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화상담집단’, 영화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상담집단’,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12명씩 무선 배정되었다. 공격성 측정도구는 노안녕(1983)이 번역한 Buss와 Durkee(1957) Hostility Scale이 사용되었으며 프로그램은 두 실험집단 모두 매회 60분씩 일주일에 2회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영화상담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의 전체 공격성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공격성 하위요인 중에서 폭행, 부정성, 간접공격성, 흥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영화상담집단이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특히 폭행과 부정성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주요어 : 분노, 공격성, 분노조절 프로그램, 영화치료

* 본 연구는 최영희의 2008년도 8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최영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32-516-6811, E-mail : try729@naver.com

영화치료는 90년대 초반 미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등에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영화를 활용한 상담 방법을 집단 상담이나 부부 상담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영화치료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Northridge Hospital의 Walter E. Jacobson 박사는 환자들이 영화치료를 하면서 자신과 영화 속 인물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영화를 ‘영혼에 놓는 주사’라고 표현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의 Stuart P. Fischhoff 교수 역시 환자의 심리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하는데 영화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하였다(김준형, 2004; 박선민, 2003 재인용).

영화치료란 심리치료에 영화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치료기법을 통칭하는 예술 치료 중의 하나로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Berg-Gross 등(1990)은 개인 및 집단에 치료적 수단으로써 상업영화를 활용한 것을 포함한 특별한 치료적 기법을 통틀어 영화치료라고 정의 하면서 ‘영화치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서정임, 2005). 1995년에 ‘영화처방전’(motion picture prescription)이란 책을 쓴 Solomon은 영화치료의 선구자로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영화를 스스로를 돕기(self-help)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화치료는 이미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요법(self-therapy)”이라고 말하였다(김선민, 2003).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화치료의 정의에는 영화의 만들기 측면 보다는 감상적인 측면이 강조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술치료의 관점에서 김수지(2005)는 ‘상담자’ ‘치료자’ ‘텍스트’를 기준으로 영화치료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구분 하여 정

리하였다. 첫째는 자기조력적 영화치료(self-help cinematherapy)로서 상담자의 개입 없이 영화 텍스트를 보면서 독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을 치료하는 기법이다. 둘째는 영화 만들기 치료(video work cinematherapy)법으로 흔히 비디오 일기, 비디오 다이어리라고 일컫는다. 이 기법중의 하나가 자신이 피사체가 되어 매일매일 8밀리 비디오카메라로 자신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찍은 화면은 자신의 이미지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촉진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작용적 영화치료(interactive cinematherapy)이다. 이 기법은 영화텍스트를 두고 내담자끼리 또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를 내담자의 삶에 통합시키는 치료법이다.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에서는 치료자의 전문적인 능력이 중요시 된다. 상담의 진행과정 속에서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영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확인하고 나누며 다양한 영화 속의 메타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작용적 영화치료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치료자, 내담자, 텍스트라는 영화의 치료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단 상담에 그 형식을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영화 치료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조화된 접근 방법과 비구조화 된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구조화된 접근방법에서는 영화를 관람하는 형태와 횟수 등 영화를 치료에 활용하는 방식과 세팅 부분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영화보기가 대리학습의 도구로 활용된다. 내담자는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영화 속 인물들을 보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며 심리치료 과정에서 영화보기가 과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Christie & McGrath, 1987; Dermer & Hutchings, 2000; Schulenberg, 2003).

90년대 후반부터 영화치료는 유럽과 미국에서 독서치료를 대신 하는 새로운 예술치료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서점에서는 영화치료와 관련된 서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책과 영화는 모두 생각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며 상식화하고, 교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Dermer & Hutchings, 2000).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살아있는 느낌으로 생생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보다는 영화가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화는 ‘난독증’과 같이 문자에 약한 환자나 문자해독이 서투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치료는 독서치료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사람들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매체라는 장점도 있다. 영화치료는 영상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번역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예술치료보다 필진성(verisimilitude: 수용자가 내용을 사실처럼 있음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정도)이 강하고 시각과 청각 문자언어를 동원하므로 수용자의 지각에 강한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다. 또 치료계획에 도움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문제의 재구조화, 역할 모델 제공, 내적 자원 파악 및 강화, 정서 증대 및 의사소통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담자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Dermer & Hutchings, 2000; Helsey & Helsey, 1998; Wedding & Boyd, 1997 재인용).

이렇듯 영화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미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화는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조망하고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매체로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외재화하여 현실에 있을 때 보다 더 건강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하여 영화 관람자는 의식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로부터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심영섭 역, 2006). 또한 영화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영화 속 인물이나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구하게 된다.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인 관계의 특징을 인식하게 해주기도 하고 현실에서 억압하여 무의식 속에 넣어두었던 욕구를 시각적 충동을 통하여 외부로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투사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준다(서정임, 2006). 영화 속에 녹아 있는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재 상영 될 때 영화는 스크린에서 돌아가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재탄생되며 여기에 영화치료의 효용성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이혜경, 2002).

최근 영화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영화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먼저 목회 분야와 관련하여 김광진(2000)은 영화의 동일시, 훑쳐보기, 욕망

의 세 가지 소망충족의 기능을 토대로 12주에 해당하는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 하였고, 박성영(1997)은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통한 상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었으며, 김준형(2004)은 자아실현과 영성 평가에 영화를 활용하여 영화치료가 자아실현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명선(2004) 역시 병사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영화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보여 주었고,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로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영화 상담의 적용 방법을 연구한 이해경(2002),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고정관념에 영화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서정임(2006)이 영화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또 김수지(2005)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형태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KIIP-O)중 냉담, 사회적 억제, 비 주장성, 과순응성, 자기 희생 등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표준 점수가 감소했으며 종료 후 2개월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영화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표출시키고 사고적인 상담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역할연기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치료적인 효과를 보여준다(이해경, 2002). 영화의 다양한 치료적 효과 중에서 특히 자신의 문제를 적당한 거리에서 본 후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효과는 청소년들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생각을 바꾸어주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 및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효과 역시 분노를 표현하는 올바른 기술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켜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표출 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의존과 독립이라는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끼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 사건들을 살펴보면 금품갈취, 집단폭행, 강간 등 청소년이 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분노’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배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강신덕, 1997).

분노란 욕구좌절과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로서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불쾌한 내적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Navaco(1977)는 분노의 표현이나 행동을 강조하면서 분노란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하여 ‘분노’란 감정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멸

시를 가져와 자아존중감을 잃게 만든다고 하였다(박성혜, 1994 재인용). 분노는 공격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흔히 둘은 혼동하여 사용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노는 자동적인 내적 반응이고 공격성은 파괴적인 외현적 반응이므로 둘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Morris, 1988).

공격성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본능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진 행위와 관찰 가능한 특징 및 행동의 결과이다. 본능을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 Lorenz는 공격성을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종족유지를 위한 투쟁의 본능과 연결하여 정의하였고 Freud는 공격성이란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죽음에의 충동이 밖으로 표면화 되도록 조절된 에너지라고 하였다(최외선, 김갑숙, 1990).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폭행, 간접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 원한, 의심, 죄의식과 같이 8가지로 나누었다. 즉 사람들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인 폭행, 악의성 있는 험담 및 짓궂은 장난과 같은 간접적 공격 표현인 간접 공격성, 반항하고 협동을 거부하는 부정성,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흥분성, 욕설, 저주 소리치기 등의 언어를 매개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감정인 언어적 공격성, 타인에 대해 질투하고 증오하는 원한, 지나치게 세심하여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의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나쁘게 느끼는 죄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이라 하기도 하였다(김덕호, 2000; 송현옥, 2005). 강신덕(1997)은 분노라는 감정이 커질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할수록 분노가 커

지며, 분노가 커질수록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였다. 또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는 상대방을 계속 공격적이게 자극하여 서로 비난하고 상처주고 보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점점 더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분노는 공격성 뒤에 숨겨진 동기나 힘, 또는 공격적인 행동의 유발인자로 정의하기도 한다(Averill, 1982).

분노에 대한 치료는 정서경험 중심의 접근, 체계지향적 접근, 불교적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상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이중 가장 널리 활용되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치료가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이다(서수균, 2005). 인지행동치료는 크게 인지적 재구성 치료, 이완 치료, 기술 훈련 치료로 구분된다. 먼저 인지적 재구성 치료는 왜곡된 사고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논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Beck, 1976; Ellis, 1973). 분노에 대한 인지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노조절을 위한 집단 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강신덕, 1997; 김계현, 1993; 송현옥, 2005; 전미란, 2007; 권영덕, 2002; 김덕호, 2000).

서수균(2005)은 역기능적인 분노를 유발시키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노조절 집단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신체증상자각하기 및 근육이완 훈련, 자동적 사고 이해와 분노차단 행동기법 연습, 인지적 재구조화, 분노표현연습을 중심으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강신덕(1997) 또한 청소년 대화광장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분노조절프로그램

을 소개 하였다. 총 9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자기장점발견하기, 자기 정서 이해하기, 감정폭발 지연 방법 익히기, 합리적인 사고 방법 익히기, 효과적인 분노표현방법 익히기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화치료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과 일반인인 경우가 많았고 내용은 자아실현, 대인관계, 양성평등, 가족치료, 스트레스감소 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활자화 된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컴퓨터를 비롯한 영상매체를 주류 문화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영화치료가 효과적인 상담치료도구로 활용 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화매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영화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가? 이를 위하여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강신덕(1997)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영화치료기법은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 가능하고 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상호작용적 영화 치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B중학교 남학생 2학년 12학급 492명에게 공격성 검사를 실시한 후 공격성 점수가 높은 상위 10%의 학생들로 선정 되었다. 초기 선정된 학생수는 48명이었으나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학생 4명과 학원 및 개인사정으로 시간이 안 되는 학생 8명이 제외 되어 최종 연구대상자는 36명으로 정해졌다. 집단은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영화상담집단’, 영화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일반상담집단’, 어떤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세 집단에 각각 12명씩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측정도구

대상자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안녕(1983)이 번역한 Buss와 Durkee(1957) Hostility Scale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폭행, 간접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 원한, 의심, 죄의식 등 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1점), “아니오”(0점)에 ‘○’표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문항수는 75 문항 이고 15개 문항(1, 10, 17, 20, 27, 34, 39, 50, 55, 63, 66, 67, 71, 72, 74)은 역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uss & Durkee, 1957) 신뢰도(Cronbach's α)는 0.76이었다. 그리고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폭행이 .841, 간접공격성이 .621, 부정성이 .721,

흥분성이 .704, 언어적 공격성이 .832, 원한이 .753, 의심이 .672, 죄의식이 .820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각각 세 집단에 공격성 검사지로 사전-사후 검사를 동일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검사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회기에 사전 검사에 사

용했던 공격성 검사도구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영화상담집단’에는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일반상담집단’에는 일반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공격성 검사도구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 시켰다가 다른 두 실험집단의 상담이 끝날 때 다시 모이게 하여 사후 검사를 받게 하였고 연구가 종료 된 후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집단마다 1주일에 2회 실시하였

표 1.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회기	제목	주제	프로그램 목표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신뢰감 형성	프로그램의 목적, 방법,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소개 및 워밍업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감을 형성한다.
2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
3	자신의 분노감정에 대한 이해	자신의 정서 이해 및 분노패턴 찾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이해하고 분노패턴을 찾는다.
4	분노폭발을 지연시키는 방법 연습	공격적인 분노 폭발에 대한 대리 행동 찾기	자신이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진정시키기 위한 대리행동을 찾고 연습해 본다.
5	타인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상대방의 언어,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타인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6	생각 변화 하기	분노를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생각 바꾸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킨다.
7	분노표현 연습하기	올바르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8	마무리 하기	정리 및 마음 다지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새롭게 배운 내용, 느꼈던 점, 앞으로의 마음 가짐등을 서로 이야기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는다.

으며, 1회당 60분간 진행하였다. 초기엔 회당 90분으로 계획하였으나 학생들이 학원시간을 비롯한 개인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고 90분을 지루해 하여 60분으로 수정하였다.

프로그램구성

본 연구에서 영화상담집단에 실시한 프로그램은 강신덕(1997)이 청소년대화광장(1997)에서 소개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기초로 송현

옥(2005), 전미란(2007), 권영덕(2002), 김덕호(2000)가 소개한 분노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영화치료의 기법을 접목시킨 후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 활용한 영화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에서 발행한 'KIFA영화목록'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의 주제에 치료적 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활용된 영화 및 영화편집장면은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1명, 상담심리

표 2.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활용한 영화

회기	제목	영화 제목	활용 초점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클래식	주인공의 자기소개 장면을 통하여 편안하게 자기노출을 하도록 돕는다.
2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 프리덤 라이터스 • 죽은 시인의 사회	필름매트릭스와 셀프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발견한다.
3	자신의 분노감정에 대한 이해	• 마스크	주인공의 풍부한 표정연기를 통하여 감정 알아맞추기와 'Bad Model'을 통한 관찰학습으로 화날 때의 자신의 정서를 이해한다.
4	분노폭발을 지연시키는 방법 연습	• 체인징 레인스	'Bad Model'에 대한 관찰학습을 통하여 분노 폭발 후의 나쁜 결과들에 대하여 인식한다.
5	타인에 대한 이해	• 마빈의 방	영화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와 'Good Model'과 'Bad Model'을 통하여 타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안다.
6	생각 변화 하기	• 키드	주인공이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생긴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을 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꾼다.
7	분노표현 연습하기	• 마빈의 방 • 굿 윌 헌팅	영화 속의 'Good Model' 따라하기를 통해 '나-전달법'을 익히고 올바른 자기주장 연습을 한다.
8	마무리 하기	프로그램에 활용한 모든 영화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본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장면, 주인공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

사 2명의 검수를 거쳐 내용타당도가 높고 세 사람 모두 치료적합도가 10점 만점에서 7점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선택하였다(표 2 참조). 영화에 대한 이해 및 동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회기별 영화는 2종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화장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짧게 설명을 보충하였다. 또 각 회기별로 ‘활동 지도서’와 ‘활동지’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영화관람은 5분에서 10분 정도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관람을 하고 질문을 통한 자기개방 및 탐색, 역할연기, 활동지 빈칸 채우기 등의 집단 활동을 한 후 소감을 나누고 회기별 평가지와 소감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반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에서 영화보기를 제외시킨 프로그램으로 강신덕(1997)이 개발한 기존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자신의 분노패턴과 맞는 방법 찾아보기,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인식 연습하기,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인식하고 분노를 가중시키는 인지과정 재구조화하기, 바람직한 분노표현을 위한 대화기법 및 비평을 다루는 기술 습득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외 프로그램 진행 방법은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영화상담집단, 일반상담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의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영화상담집단과 일반상담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 간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결 과

두개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공격성 수준은 전체 공격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체적인 공격성 수준의 측면에서 영화상담집단과 일반상담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이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격성 하위 요인 중에서 원한 요인의 경우 영화상담집단(4.92점)과 일반상담집단(4.83점)이 통제집단(3.42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 33)=3.291, p<.05$). 따라서 이후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사후 공격성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공변량 분석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공격성 총점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2, 33)=23.632, p<.001$), 사후다중비교 검증결과 영화상담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살펴보기 위한 η^2 는 .492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격성의 변화를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F(2, 33)=4.305, p<.05, \eta^2=.123$)과 부정성($F(2, 33)=4.582, p<.05, \eta^2=.219$)에서 영화상담집단이 가장 낮아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한 사후다중비교 검증결과 영화상담집단이 통제집

표 3. 집단별 사전-사후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M(SD)
총점	영화상담집단	46.08(8.27)	35.58(10.77)
	일반상담집단	45.83(4.17)	37.33(6.05)
	통제집단	44.67(6.34)	50.00(5.74)
폭행	영화상담집단	5.92(2.68)	4.58(2.78)
	일반상담집단	5.83(2.04)	5.33(2.61)
	통제집단	6.83(1.11)	7.42(1.16)
간접공격성	영화상담집단	6.42(1.73)	4.67(1.07)
	일반상담집단	6.25(1.54)	4.75(2.14)
	통제집단	5.50(1.17)	6.17(1.59)
부정성	영화상담집단	3.17(1.19)	2.58(.79)
	일반상담집단	3.25(.97)	2.83(.94)
	통제집단	3.00(1.13)	3.75(1.29)
흥분성	영화상담집단	6.50(2.28)	4.08(2.07)
	일반상담집단	7.17(1.47)	5.33(1.83)
	통제집단	6.92(2.02)	8.00(1.60)
언어적공격성	영화상담집단	8.33(1.67)	7.42(3.06)
	일반상담집단	7.25(1.71)	6.75(1.54)
	통제집단	8.50(1.98)	9.25(1.82)
원한	영화상담집단	4.92(1.68)	3.17(1.59)
	일반상담집단	4.83(1.75)	3.00(1.91)
	통제집단	3.42(1.38)	4.25(1.82)
의심	영화상담집단	4.50(2.11)	3.50(1.83)
	일반상담집단	5.00(2.17)	4.00(2.04)
	통제집단	4.42(2.19)	4.67(1.92)
죄의식	영화상담집단	6.33(1.72)	5.58(2.11)
	일반상담집단	6.25(1.91)	5.33(2.02)
	통제집단	6.08(1.78)	6.50(1.62)

표 4. 공격성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간 공변량 분석 결과

요인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eta square (η^2)	Bonferroni 다중비교
총점	공변인	840.670	1	840.670	22.635***	.236	
	집단간	1755.416	2	877.708	23.632***	.492	통제집단<영화상담집단
	오차	1188.496	32	37.141			통제집단<일반상담집단
	합계	63430.000	36				
	수정합계	3568.222	35				
폭행	공변인	71.013	1	71.013	21.958***	.314	
	집단간	27.847	2	13.924	4.305*	.123	통제집단<영화상담집단
	오차	103.487	32	3.234			
	합계	1428.000	36				
	수정합계	226.222	35				
간접공격성	공변인	15.056	1	15.056	6.379*	.140	
	집단간	25.134	2	12.567	5.324*	.234	통제집단<영화상담집단
	오차	75.527	32	2.360			통제집단<일반상담집단
	합계	1079.000	36				
	수정합계	107.639	35				
부정성	공변인	1.347	1	1.347	1.287	.030	
	집단간	9.590	2	4.795	4.582*	.219	통제집단<영화상담집단
	오차	33.486	32	1.046			
	합계	380.000	36				
	수정합계	43.889	35				
홍분성	공변인	38.832	1	38.832	17.081***	.187	
	집단간	88.645	2	44.322	19.495***	.427	통제집단<영화상담집단
	오차	72.751	32	2.273			통제집단<일반상담집단
	합계	1421.000	36				
	수정합계	207.639	35				
언어공격성	공변인	19.618	1	19.618	4.306*	.095	
	집단간	26.771	2	13.385	2.938	.130	
	오차	145.799	32	4.556			
	합계	2399.000	36				
	수정 합계	205.639	35				
원한	공변인	3.347	1	3.347	1.065	.029	
	집단간	14.291	2	7.145	2.274	.124	
	오차	100.570	32	3.143			
	합계	549.000	36				
	수정 합계	114.972	35				
의심	공변인	45.480	1	45.480	18.614***	.344	
	집단간	9.923	2	4.961	2.031	.075	
	오차	78.187	32	2.443			
	합계	724.000	36				
	수정 합계	131.889	35				
죄의식	공변인	21.515	1	21.515	6.812**	.163	
	집단간	10.543	2	5.272	1.669	.080	
	오차	101.068	32	3.158			
	합계	1345.000	36				
	수정 합계	131.639	35				

* $p < .05$, ** $p < .01$, *** $p < .001$

단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공격성($F(2, 33)=5.324, p<.05, \eta^2=.234$)과 흥분성($F(2, 33)=19.495, p<.001, \eta^2=.427$)에서는 영화상담집단과 일반상담집단이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언어공격성($F(2, 33)=2.938, p>.05, \eta^2=.130$), 원한($F(2, 33)=2.274, p>.05, \eta^2=.124$), 의심($F(2, 33)=2.031, p>.05, \eta^2=.075$), 죄의식($F(2, 33)=1.669, p>.05, \eta^2=.080$) 요인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영화라는 치료적 도구를 활용하여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고 중학교 남학생에게 실시하여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일반상담집단 및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첫째,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게임을 좋아하고 영상에 길들여진 중학교 남학생들에게 ‘영화’라는 매체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치료적인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상담과정 중에서 집중력이 약하고 끈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영화보기를 한 후부터 좀 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상담 소감문에서 영화보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12명 중 10명이었고 이유는 재미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영화치료가 내담자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도움을 주며, 집단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김수지(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실제로 김수지(2005)의 연구결과에서 영화치료를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며 추수 2개월 까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영화치료를 받은 집단은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사회적 인정 욕구와 사회성 부족 등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응고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푸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종의 교훈적인 이야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또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해 특정한 영화를 이용하는 구조화 된 영화치료(심영섭 역, 2006)가 모방 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영화는 분노를 행동화하여 자신의 분노패턴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거울과 같은 역할로 자신의 분노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분노를 촉발시키는 역기능적인 생각을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등 행동, 정서, 인지의 세 영역에서 모두 효과적인 치료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반상담집단과 비교할 때 영화상담집단의 경우 영화속 주인공과 동일시가 된 후 자신이 화가 날 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얘기한 학생이 12명 중 10명으로 일반상담집단보다 4명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치료가 정서, 인지, 행동의 세 분야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Berg와 Cross(1955), 영화는 정서, 인지, 행동 사이에 연관을 맺게 해준다고 주장한 Solomon

(1995), Heston과 Kottman(1997), Schulenberg (2003)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둘째,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영화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분노조절 프로그램에 비해 공격성 하위 요인 중 폭행과 부정성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일반분노조절 프로그램 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공격성 하위 요인 중에서 특히 폭행과 부정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가 대리학습을 통하여 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모델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실험집단 모두 공격성 하위요인 가운데 언어적공격성, 원한, 의심, 죄의식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영화가 영상매체로서 이미지 전달이 중심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매개로 하는 부정적인 감정 보다 신체적 폭력이나 반항적인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대리학습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 습관은 단기간의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영화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일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해력과 끈기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환타지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정서적 고양상태에서 본인의

환타지와 현실을 오가며 자신의 문제와 연결된 감정들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셋째, 실제 자기 주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자신만이 힘든 고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넷째,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를 통하여 모델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성공하는 소극적이고 약한 주인공에 대한 자기동일시를 통하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내적 자원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내용으로 사회에 역기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대한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이고 타인에 대한 조망 능력을 길러주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능력을 높여주는 등 상담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이므로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변인을 배제시킬 수 없다. 둘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활용된 영화가 외국영화가 많아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 동일시에 미치는 변인을 통제할 수 없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학생들의 과외 및 학원수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 제약이 많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부모님의 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된 영화는 대부분이 외국 영화이다. 학생들의 자기 동일시 및 투사에 의한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치유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영화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때 충분한 교사 연수와 학교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영화는 영상세대인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로 상담의 보조 도구로서 매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영화를 활용한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덕 (2002).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진 (2000). 영화보기를 통한 가정목회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 목회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1993).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연구, 11, 49-64
- 김덕호 (2000).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 김용섭 (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논문집, 12, 71-90.
- 김준형 (2004). 영화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실현과 영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2005).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민 (2003). 가정평화상담소 주최 영화치료 워크샵 자료. 미 8군 121 종합병원 정신과 알콜 상담센터.
- 박성영 (1997). '영화'를 통한 상담 가능성 연구-정신분석학적 영화보기를 통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실천신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1994). 분노 유발 상황과 분노 수준별 청소년의 대처전략과 효과성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선민 (2003). 영상자료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5).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임 (2006). 영화치료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옥 (2005). 분노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감소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섭 역 (2006).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 심영섭 (2006). 영화치료: Cinema Therapy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학교상담학회 강의자료집, 1-10.
- 이혜경 (2002). 청소년 인성교육에 있어 영화상담 적용방법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란 (2007). 해결중심상담을 기반으로 한 집단

- 상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 (2004). 영화치료가 병사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논문.
- 최외선, 김갑숙 (1990).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11(2), 301-321.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9-359.
- Christie, M & McGrath, M. (1987). Taking up the challenge: Film as atherapeutic metaphor and action ritu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8(4), 193-199.
- Cole, L. (1966).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Lnc.
- Deffenbacher, J. L. (1999).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95-309.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Dermer, S. B. & Hutchings, J. B. (2000). Utilizing movies in family therapy: Applications for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 163-180.
- Ellis, A. E. (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New York: McGraw-Hill.
- Hestion, M. L. & Kottman, T. (1997) Movies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6, 92-99.
- Jacobson, E. (1938).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ao Press.
- Lazarus, R. S. (1991). *Em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ters, J. C., Burish, T. G., Hollon, S. D., & Rimm, D. C. (1987). *Behavior therapy*. SanDiego: Harcourt, Brace & Jovanovich.
- Novaco, R. W. (1997). A stress inoculation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i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merican Journal of Commuity Psychology*, 5, 327-346.
-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Lexington, Mass: D.C. Health.
- Orenstein, R, & Sobel. D. (1987). *The healing brai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thenberg, A. (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sychiatry*, 128, 454-460.
- Schulenberg, S. E. (2003). Psychotherapy and movies: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3(1), 35-48.
- Solomon, G. (1995). *The Motion Picture Prescription: Watch this movies and call me in the morning*. Santa Rosa: Aslan Publishing.
- Spielberger, C. D., Russell, S., Crane, R. J., Jacobs, G.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ces in personality assesment*. Hillsdale, NJL.
- Sullivan, H. S (1956). *Clinical Studies In Psychiatry*.

-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 Thornburg, H. 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edding, D. & Niemies, R. M.(2003). The clinical use of film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2), 207-215.
- Wedding, D. & Boyd, M. A. (1997). *Movies and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Boston: McGraw-Hill College.
- 원 고 접 수 일 : 2009. 6.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9. 7. 25
게 재 결 정 일 : 2009. 8. 19

The Effects of a Movie-based Anger Control Program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veness

Young-hee Choi

Eun-Jeong Kim

Yonsei University Education Graduate School

This study tested whether a movie-based anger control program reduces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veness. The therapeutic factor of movies was added to an existing anger control program. This study referenced the Hostility Scale of Buss & Durkee (1957), translated by RhoAn-nyeong (1983). The experimental group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over the control group in overall aggressiveness. Among aggressiveness subfactors: violence, negativity, indirect aggressiveness and excitability decreased. The movie-based program was particularly effective in violence and negativity. Accordingly, movies proved effective in reducing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veness.

Key words : *cinema therapy, anger, aggressiveness, anger control program*